

배우 마동석 “난 엔터테이너…재밌는 게 가장 중요해”

‘범죄도시’로 프랜차이즈 영화 꿈 이뤄
“영화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8편까지 기획 완료 스펠오프 가능성도
관객 리뷰 반응 공감 장점 최대한 부각
“마동석화 된 캐릭터로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도 ‘범죄도시’는 처음 목적대로 즐거움을 드리는 액션물일 겁니다. 생각이 필요한 영화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20년 전부터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영화를 꿈꿨던 배우 마동석은(53)은 영화 ‘범죄도시 4’의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1편을 제작할 때는 ‘범죄도시’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다. 1편 찍고 나서야 제작진한테 얘기했다”라고 말한 마동석은 영화 ‘록키’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록키’를 보고 14살에 복싱을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서 (아마추어 경기였지만) 선수 준비를 하고, 경기도 많이 뛰고 그랬다”라며 “너무 좋아해서 ‘록키’를 계속 봤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영화였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편은 좋아하고, 어떤 편은 욕하고 그래도 복싱을 주제로 계속 시리즈를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좋았다”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마동석은 본인을 엔터테이너라고 소개했다. 마동석은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하는 이유도, 배우를 하는 이유도, ‘범죄도시’를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모두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 조금 힘들게 살

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키티 올리고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빨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어떤 분이 ‘몇 달 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거 보고 웃었다’고 말한 게 굉장히 공감이 갔다. 저는 엔터테이너니까. 한 순간 웃고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가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에 맞서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렸다. 마동석은 이번 4편까지를 1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1~4편까지를 1부라고 생각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대본 작업을 하고 있다. 촬영보다 대본 작업이 더 어려워져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5~8편도 기획은 다 해놨다. 이전 편들과 완전히 달라서 ‘이게 범죄 도시야?’라고 느낄 정도로 글로벌한 부분도 있을 거다. 총 8편까지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게 꿈이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스펠오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1편이 688만명, 2편이 1269만명, 3편이 1068만명이 봤

다. 관객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부담감은 없냐는 물음에 마동석은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야 다음 편을 만들 수 있다. 최대한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또한 “요즘 영화가 부흥기가 아니라서 늘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봉한다. 저희는 열심히 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라고 했다.
‘범죄도시’가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 영화지만 그 과정에서 마석도도 성장했다. 그는 “사건을 다루는 오락 영화이다 보니까 마석도가 노력해지는 모습을 아주 조금씩만 담았다. 저는 마석도가 이번에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시킨 것 자체가 노력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마석도가 승진을 하거나, 사건을 다루는 중 다쳐서 약점이 생기거나 혹은 무력을 못 쓰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4편 빌런 백창기는 마석도보다 강한 캐릭터다. 당연히 마석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관객들도 후반부 싸움에서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마동석은 “백창기는 주목여로는 마석도한테 진다. 근데 칼을 들면 이긴다. 이번에 마석도는 승산이 없어도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일념 하에 형사로서 끝까지 싸운 것 같다. 실제 형사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사건은 보통 실제 사건을 여러 가지 합쳐서 만든다. 1편에 등장했던 단순한 신형범죄조직을 다룬 사건조차 3가지 사건을 합친 에피소드다. 그러다 보니 마석도가 빌런을 대하는 태도도 매 편마다 다르다. “4편에서는 마석도가 피해자 어머니와 직접 소통을 한다. 그분의 아들을 아무



렇지도 않게 해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쌓이고 그게 마지막 액션에서 폭발하는 거다”라며 “주먹을 한 번 치더라도 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석도의 태도는 항상 다르지만 이번 사건이 가장 감정적으로 세계 다가온 것 같다”라고 했다.
이번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리뷰 반응 중 어떤 부분에 가장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마동석은 “모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전 편이 개봉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다음 편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그는 “저희는 미리 생각했던 것들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모든 사람의 취향을 노리는 건 쉽지 않다. 3편은 너무

경쾌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또 여성 분들이나 MZ 세대가 너무 좋아했다. 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마동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와 즐거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도시’ 시리즈 속 자신을 ‘마동석화 된 캐릭터’라고 말했다. “‘범죄도시’는 처음 목적대로 즐거움을 드리는 액션물일 겁니다. 앞으로도 머리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영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새로운 건 좀 나중에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배우가 많지 않으니 지금은 ‘마동석 캐릭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하이브, 어도어 이슈에 시총 8500억 날렸다

증권가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중장기 영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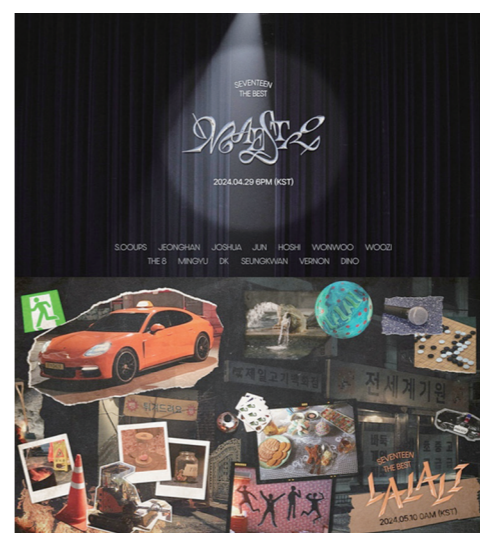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가 이틀째 하락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경영진 내용으로 증발한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500억원이 넘는다. 양측의 대립으로 애꿎은 소액 주주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증권업계는 경영진 갈등으로 당분간 하이브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한 만큼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1.18%) 내린 21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2일 7.81% 급락한 하이브의 주가는 이틀 동안 9% 가량 떨어지면

서, 시가총액은 8538억원이 증발했다.
최근 하이브는 민회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이브는 이들이 투자자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 중인 어도어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새 걸그룹 ‘아일릿’을 제작하면서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절차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주장

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는 당분간 하이브의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주력 아티스트의 활동은 문제가 없어 중장기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상반기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 및 팬미팅 등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하이브 아티스트 라인업 중 뉴진스가 배제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어도어가 올해 하이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벤트는 멀티 레이블 체제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매수와 목표주가 34만원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오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측 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력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연구원은 “다음달 뉴진스는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컴백에 나설 예정이며, 6월에는 일본 정식 데뷔와 도쿄 돔 팬미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에 대해 “BTS(빅히트)와 세븐틴(플레디스), TXT(빅히트), 엔하이픈(빌리프랩), 르세라핌(쏘스) 등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단일 레이블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중장기 성장동력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븐틴, 신곡 4곡 모두 뮤비 제작 나서



대세 그룹 ‘세븐틴’(SVT)이 베스트 앨범에 실린 신곡 네 곡의 뮤직비디오를 모두 제작했다.
24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 ‘세븐틴 이즈 라이트 히어(17 IS RIGHT HERE)’의 타이틀곡 ‘마에스트로(MAESTRO)’ 뮤직비디오가 오는 29일 오후 6시 베스트 앨범 음원 공개와 함께 먼저 베일을 벗는다.
유닛곡 뮤직비디오도 순차적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5월10일 힙합팀 신곡 ‘라라리

(LALALI)’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퍼포먼스팀 신곡 ‘스펠(Spell)’ 뮤직비디오, 24일 보컬팀 신곡 ‘청춘찬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플레디스는 “특히 이들 고유 유닛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7년 세븐틴 정규 2집 ‘틴, 에이지(TEEN, AGE)’ 이후 약 7년 만이라 팬들의 기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세븐틴은 앞서 공개된 신곡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통해 폭넓은 음악 색깔을 예고했다. 강렬한 비트와 피아노 사운드에 돋보이는 ‘마에스트로’를 비롯 힙합 스웨그가 물씬 풍기는 ‘라라리’, 나른하고 몽환적인 ‘스펠’, 경쾌한 리듬과 감미로운 보컬이 인상적인 ‘청춘찬가’ 등이다.
세븐틴은 이번 베스트 앨범 발매 전인 오는 27~28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서울(SEVENTEEN TOUR ‘FOLLOW’ AGAIN TO SEOUL)을 연다. 지난 달 30~31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막을 올린 이 투어는 5월 18~19일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나카이, 5월 25~26일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에서 이어진다.
한편 세븐틴은 이날 오후 6시 자체 콘텐츠 ‘고잉 세븐틴의 컴백 스페셜 ‘음악마당’ 1편이 공개된다.

NCT 도영, 첫 솔로 앨범 ‘청춘의 포말’ 국내외 차트 1위

수륙곡 줄 세우기도 기록 등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 얻어

그룹 ‘엔시티(NCT)’ 도영이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알렸다.
2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도영이 첫 번째 앨범 ‘청춘의 포말 (YOUTH)’로 각종 국내외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도영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 ‘반딧불 (Little Light)’은 벅스 실시간 1위, 멜론 핫100(발매 100일 이내) 2위·톱100 21위

등 피크 순위 기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록곡 줄 세우기도 기록하는 등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중국 최대 플랫폼 QQ뮤직에서 앨범 판매액 50만위안 달성 시 부여받는 ‘더블 골드 앨범’을 획득함은 물론, 발매 5분 만에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에 올랐다. 또한 쿠팡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



본 라인뮤직 실시간 앨범 톱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카드 비엠,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EP

혼성그룹 ‘카드(KARD)’ 멤버 비엠(BM)이 첫 솔로 EP를 선보인다.
24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따르면, 비엠은 오는 5월7일 오후 6시 첫 EP ‘엘리먼트(Element)’를 발매한다.
비엠이 솔로 EP를 발매하는 건 지난 2017년 데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엘리먼트’는 사랑, 이별, 질투 등 남녀 간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에 관한 비엠의 근원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앨범이다. 비엠은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비엠은 그간 솔로 아티스트로서 꾸준히 싱글을 선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매한 싱글 ‘로우키(LOWKEY)’는 발매 직후 전 세계 9개국 및 지역 아이튠즈 K-팝 송 차트 톱10에



진입했다.
첫 EP 발매와 함께 비엠은 내달 14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멜로스,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첫 솔로 미국 투어 ‘애프터 더 애프터 파티(After the After Party)’도 진행한다.